



사진 : 홍경희 클라udia(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부활 제3주일

제1독서 사도행전 2, 14, 22ㄴ~33

화답송 시편 16(15), 1~2ㄱ과 5, 7~8, 9~10, 11 (© 11ㄱ 참조)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1.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2.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어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3.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4.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베드로 1서 1, 17~21

복음환호송 루카 24, 32 참조

◎ 알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루카 24, 1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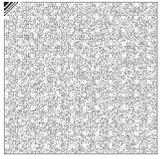
영성체송 루카 24, 35 참조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 담화문 바로보기

한국 교회는 5월 1일(주일인 경우)이나 그 전 주일에 이민의 날을 지내며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목적인 관심을 더욱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 제103차 세계 이민의 날 교황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찰나에 불과한 현세의 삶이 영생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고, 그때 순간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 점들이 영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2코린 6, 2 참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느님 나라로 가는 나그네 여정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 여정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몇 가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여정에서-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비록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여도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시기에 실의와 좌절에 빠져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동행하는 동안에는 예수

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에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물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역시 당시의 유대인처럼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에, 여러 차례 예수님의 발현을 목격하고서도 수난과 죽음과 부활의 여정의 필연적인 연관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 전체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지요. 오늘 1독서는 성령강림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단순하고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담대하게 모여든 군중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빵을 떼어주실 때에야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그것은 나그네 대접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 기회는 없었겠지요. 아브라함 역시 나그네 접대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행운을 누리게 되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우리의 밥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을 매일 혹은 매 주일 모시면서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께서 오셔서 사랑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시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들 역시 나그네에 불과함을 깨닫고 나그네 대접을 극진히 함으로써 부활의 기쁨과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일
아우구스티노 신부
울만성당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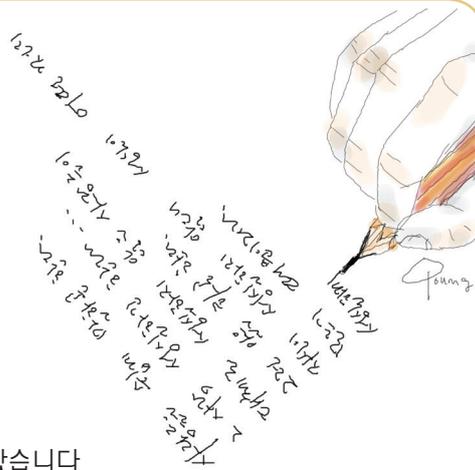


지금까지

솔직하고 맑고 깨끗한

천부적인 재능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어차피 없는 재능,
성실한 사람이나 되어볼까 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같았습니다.
성실이란 마음먹기에 달렸기 때문에 자신 있었지만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건
천부적인 재능만큼이나 힘겹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제 생의 목표는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Busan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rporation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5.1(월)~2(화)
유영일 신부(울만성당 주임)
5.3(수)~6(토)
안원철 신부(우정성당 보좌)

**5.3(수) 부산가톨릭평화방송
개국 17주년 특집**

특집 공개방송 **사랑이 있는 세상**

12:15~14:00

- <함께 하는 여정> 출연 교우 토크
- 특별한 (퀴즈콩트 성경에서 온 그대)
- 게스트 : 정용진, 김종이, 김병희 신부
- 애청자토크

다정 다감 다섯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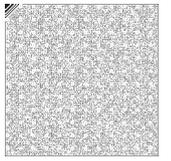
17:00~18:00

- 개국일 축하메시지
- 문자참여 #2340, 방송토크





부활의 신비



하 창 식 프란치스코

“죽음은 내가 현재 읽고 있지만 아직은 다 읽지 못한 책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존재한다.”

아나톨 프랑스의 『타이스』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고매한 은수 수도원장에 의해 성녀가 된 타락한 여인인 타이스와, 타이스로 인해 오히려 악마가 되어버린 수도원장의 역설적인 스토리가 주제입니다. 한때 가톨릭 교회의 금서목록에도 들었던 작품이긴 하지만, 부활 주간이 되면 가끔씩 생각나는 고전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 많은 인간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선사하는 하느님의 커다란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타이스』에 나오는 위 글귀처럼,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 언젠가는 다가올 우리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로 남아 버린다면 우리 삶은 그야말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톨릭 신앙을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님이 부활하여 우리 속에 사신다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다음에도 영원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을 보증해 주는 것이기에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역시 아나톨 프랑스의 다른 작품에서 읽은 글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지상에서의 소풍이 의미가 있는 까닭은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바라는 부활도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창시절 부활절의 영어가 왜 Easter일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이 숭배했던 봄의 여신 ‘에오스터’에서 파생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동녘을 East라고 하지요.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 부활은 바로, 동녘 어디엔가 아스라하게 있음직한 그곳, 곧 본

향(本鄉)을 향한 우리의 희망찬 여정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부활절이 Easter라고 불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줄곧 해 오고 있습니다.

어디 죽음 뒤에 따를 부활뿐이겠습니까?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시련이나 아픔을 통한 죽음과 그 고통을 이겨낸 뒤에 따라 오는 부활이 연속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큰 시련이나 사고를 당한 뒤 기적적으로 소생한 교우들로부터 일시적인 죽음 뒤의 부활을 체험한 이야기들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체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언제나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 삶 순간순간마다 이런저런 부활의 은총을 주시는데도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수필가 csha@pnu.edu



원자시계와 하늘의 징조

가뭄에서 온 편지

벼농사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모판에 법씨를 뿌리고 흙을 덮어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댄 못자리논에 모판을 옮겨 놓고 부직포를 덮어 눈에 적응하며 잘 자라도록 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5월 말 모내기를 하고 나면 온 들녘은 푸르름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즈음 언젠가 농사를 위해 가장 적당한 때인지는 하늘을 보고, 또 땅을 보며 잘 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150억 년에 1초 가량의 오차만 나는 스트론튬 원자시계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비바람이 치든, 가뭄이 들든 어떤 외부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가능한 한 완벽한 시간을 측정하여 변치 않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움트고 자라는 데는 그것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예민한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숨통이 트여야 자랍니다. 곧 홀로 머물지 않고 다른 생명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을 때라야 비로

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이 매년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때는 다른 생명을 살피어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농사의 이치가 인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시간은 이웃의 계획과 시간을 고려하여 세워져야 합니다. 거기 에다 하늘의 이치인 주님의 뜻에 맞추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나의 계획과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창조주 하느님의 신비를 눈치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관절 통증으로 비와 습도를 예측하는 수준으로 전략한 인간의 생체리듬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멍니다. 시대의 징표도 하늘의 징조를 풀이할 줄 알고서야 가능하다고 한다면, (루카 12, 56 참조) 하늘도, 햇별도, 바람도, 그 사이를 가득 채운 풍성한 피조물의 생명도 두루 살펴 내 삶의 풍요로움과 시대를 제대로 식별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준한 신부(감물생태학습관 관장) jhkim7291@gmail.com



5월의
도서, 영화

믿는 이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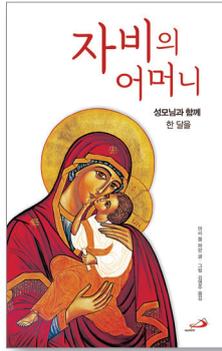
■ 김종수 지음 ■ 가톨릭출판사 ■ 7,000원



이 책은 쉽게 내용을 풀어나가 신자들이 성모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분량이 적어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모님이 막연하게 다가왔다면 이 책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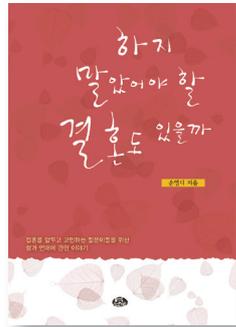
■ 마리 폴 파란 지음 ■ 김영주 옮김
■ 성바오로출판사 ■ 5,000원



이 기도서는 한 달 동안 매일 말씀을 읽으며 묵상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묵상과 기도는 우리를 한층 더 깊이 예수님께 맞닿을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매일 펼쳐지는 아름다운 이콘화를 보는 즐거움은 기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선물로 다가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결혼도 있을까

■ 손엘디 지음 ■ 벽난로 ■ 8,000원



저자는 한국 사회의 혼란스런 성 문화와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아파하는 부부들을 수없이 만났지만 하지 말았어야 할 결혼을 한 부부는 하나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저자는 단언합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꼭둑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교구 홈페이지 '책과 나눈 정담' 코너에 권장도서의 독후감을 올려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느 독재자 The President

▶ 상영관 : 가톨릭소극장(아트씨어터C&C)
▶ 상영시간표 :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442-0602, cafe.naver.com/cnctheater
▶ 관람료 : 주보 지참 시 6천원 → 5천원,
단체 관람 시(20명 이상) 4천원

“전 도시의 불을 꺼라. 손자의 명령이 곧 나의 명령이다”
부귀영화를 누리던 잔혹한 독재자가 한 순간에 권력을 잃게 된다. 그의 가족들은 모두 해외로 도주하지만, 독재자와 그의 어린 손자만이 남겨진다.

“우리는 이제 거리의 악사란다”
자신이 군림했던 세상에서 도망자로 몰락한 독재자.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철부지 손자에게 연극을 하자고 제안한다.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여정에서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만행을 하나 둘씩 고스란히 마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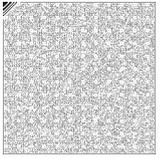
하느님과 세상, 복음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을 앞에 두고 그 가운데에서 갈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더 많이 선택하고는 싶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흔히들 세상은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여러모로 동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일부부터 이미 전쟁입니다. 이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땅 위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창세 3, 18~19) 있는 아담의 후예, 피조물인 인간이 지닌 현실입니다. 오늘날엔 이 생존을 위해 벌여야 하는 전쟁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가혹해졌습니다. 관찰아 보이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 가며 치열한 경쟁 속으로 뛰어들어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삭막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 전쟁이 아닙니다. 신앙인인 우리에게 세상은 가치관을 두고 싸우는 전쟁터이

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지, 복음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지를 앞에 두고 매번 치열한 전쟁을 치릅니다. 이기는 쪽은 매번 다릅니다. 복음이 좀 더 많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늘 바라지만, 현실의 유혹은 언제나 복음보다 더 강하고, 더 절박하고, 더 매력적입니다. 그렇기에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하나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순간순간 당신을 선택합니다!’ 신앙인은 매 순간 주님을 내 삶의 가운데 자리에 모셔놓고자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 홍경완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mederico@cup.ac.kr

부산가톨릭평화방송(CPBC), 개국 17주년 특집 공개방송



공개방송을 진행했다. 2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공개방송에서는 ‘기초공동체 특집 - 함께 하는 여정’ 코너에 출연했던

었다. 또한 애청자 토크, 퀴즈 콘트 ‘성경에서 온 그대’도 있었다. 특별히 이날 청각, 시각 장애우들을 위해 수화와 화면 해설(배리어프리)을 하며 공개방송을 진행하였다.

손삼석 주교는 영상 인사말을 통해 “부산가톨릭평화방송 개국 17주년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라디오를 통해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고, 평화스러운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가톨릭평화방송(사장 : 김두완 신부)은 올해 개국 17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1일(금)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사랑이 있는 세상’

사직성당 생활성가팀 ‘두드림’, 신성당 주일학교 초등부, 만덕성당 노인대학 공동체를 다시 초대하여, 그간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본당 재정 간담회 실시

교구는 4월 19일(수)~5월 19일(금)까지 ‘본당 주임신부와 교구 직권자의 본당 재정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재정 간담회는 기존 재정 감사 형식이 아닌,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주임신부가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별히 2018년 교구 분담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교구는 물론 본당에서도 내실 있는 살림을 살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수정성당, 작은 음악회 열어



수정성당(주임 : 조성제 신부, 회장 : 이재현 모세)은 지난 4월 21일(금) 선교와 문화 나눔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인성교육 연합대학 협약식



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회장 : 부산가톨릭대학 총장 김영규 신부) 소속 12개 대학 총장들은 지난 4월 21일(금)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인성교육 연합대학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의 초석이 될 것이며, 참다운 인성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보다 나은 인재양성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한가협 소속 대학 - 가톨릭대, 가톨릭상지대, 광주가톨릭대, 꽃동네대, 대구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목포가톨릭대, 부산가톨릭대, 서강대, 수원가톨릭대, 인천가톨릭대, 가톨릭관동대



지난 4월 21일(금) 푸른나무 교육관과 울산 하늘공원 자연장지에서 ‘연도연합회 회장단 연수’가 회장단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위령기도의 변화와 친환경적 자연장(自然葬)’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연도 변화에 관한 강의, 견학 체험 학습 등으로 진행되었다.

양산성당, 가두선교 및 환경 정화 활동



4월 23일(일)
성당 근처, 남부동, 북부동 일대
주임 : 김성한 신부, 회장 : 최성호 마티아

본 당

대연성당 영어교실

기초반 : 10:00~10:50 화/목반, 수/금반
중급반 : 11:00~11:50 화/목반, 수/금반
회화반 : 12:00~12:50 화/목반, 수/금반
· 5.10~6.30 / 2개월 3만원
문의 : 010-8501-9250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지체장애인복지회 후원회 미사

5월 후원회 미사 5.2(화)~5.16(화) 변경
문의 : 517-0613, 010-3660-2636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첫금철야 첫토요 신심미사
철야 : 5.5(금) 21:30 푸른군대 경당
내용 : 성모님과 함께 성모의 밤
신심 : 5.6(토) 11:00 - 생명 수호(태아)를 위한
십자가의 길, 아기봉헌 및 갱신 있음(사전접수)
영상과 음악이 있는 목주기도 100단
· 5.1(월) 09:30~16:30 · 푸른군대 경당
문의 : 646-3746(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미사

· 5.2(화) 11:00 · 중앙성당 / 대상 : 전신자
주례 : 최요섭 신부 / 문의 : 466-2290

부산지오세(구)회원 야외 행사

· 5.14(일) 11:00 · 이기대성당 앞 집합 후 이동
문의 : 010-5594-6686(서정구)

성서교육원 두번째 목상 <창세기편>

· 5.15~ 매주 월요일 10:00~12:00
· 초량 성서교육원 3층 / 회비 : 5만원
대상 : 60세~70세(성서가족, 일반신자)
내용 : 성서 안에서 노년기 준비를 위한 여정
(강의, 그룹목상) / 문의 : 465-8162, 467-0761

시각장애인선교회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화 15:00~17:00 / 문의 : 464-3909
·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3층 성전(박성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목처 계약직원 구함

자격 : 가톨릭 신자,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반주 가능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교적
사본 각 1부 / 접수 : 5.1(월)~8(월) 15:00 까지
접수방법 : 방문 접수(부산가톨릭대학교 사무처
총무부), 이메일 접수(hspark@cup.ac.kr)
문의 : 510-0851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7, 8층)

용도 : 사무실(7층 20평, 8층 14평)
문의 : 462-1870(행정실)

가톨릭간병인회 간병사 모집

개인간병(경력자) 및 완화의료도우미
(60세 미만 교육수료자)
문의 : 933-7042, 010-3572-7045

김해성음악합창단 단원 모집

연습 : 5.1(월) 시작, 매주 월요일 19:30 활천성당
지도신부 : 문성호 신부 / 지휘 : 안창섭
문의 : 010-4430-3307(단장), 010-3580-3039(총무)

평신도선교사회(신학원총동문) 행사

· 5.21(일) 14:00 · 동래성당
주제 : 성지(聖地) 이야기 / 대상 : 신학원 졸업생
내용 : 동래읍성순례길(복자와 함께) → 식사
참가비 : 1만원 / 문의 : 462-0334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음이 성령기도회
· 5.1(월) 19:30 전포성당
· 5.3(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교구 철야기도회
· 5.5(금) 23:00~다음날 04:00
- 28기 성령목상회 심화과정 1단계 3차
(성모신심세미나)
· 5.12(금) 15:00~14(일) 17:00
회비 : 10만원(교재비 8,000원 별도)
미사, 필기, 세면도구 지참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
· 5.4(목) 20:00~23:00 울산 영성의 집
강사 : 최봉근 형제(서울대교구)

제54차 성소주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 8)

· 5.7(일) 10:00~16:00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상 : 초3~고등부 주일학교 학생 / 문의 : 629-8760~2(성소국)

성소를 위한 9일 기도 4.28(금)~5.6(토)

| 일 자 | 지 향 | 기 도 서 |
|---------|-----------------|-----------------------------|
| 4.28(금) | 복음화를 위하여 | 복음화를 위한 기도(102p), 주모경 |
| 4.29(토) | 교황과 주교를 위하여 | 교황이나 주교를 위한 기도(90p), 주모경 |
| 4.30(일) | 사제들을 위하여 | 사제들을 위한 기도(91p), 주모경 |
| 5.1(월) | 수도자를 위하여 |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93p), 주모경 |
| 5.2(화) | 평신도 사도직을 위하여 |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94p), 주모경 |
| 5.3(수)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99p), 주모경 |
| 5.4(목) | 가정을 위하여 | 가정을 위한 기도(106p), 주모경 |
| 5.5(금) | 비신자들을 위하여 | 비신자를 위한 기도(96p), 주모경 |
| 5.6(토) | 예비신학생, 신학생 위하여 | 성소를 위한 기도(97p), 주모경 |

성모성월 1일 무료피정

매주 수요일 10:30~16:00

5월 3일, 10일, 17일, 24일

09:30 부산역 스타일웨딩홀 지하철 4번 출구
09:30 동래역 09:40 온천장역
09:05 해운대 주공 3단지 09:18 좌동성당

문의 : (055)382-9465(영성의집)

부산교구 공월묘지 하늘 공원

† 미사 : † 셔틀버스 운행
매주 토요일 09:00 남천동 교구청
오전 11시 3층 경당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 운영 시간 : 09시~17시(연중 무휴)
※ 분양 문의 : 관리사무실 Tel. 055)374-8732~3

(주) 씨피여행사

1.6/12 발칸 성지순례 13일 415만원
2.8/15 스페인일주 포르투갈 루르드 14일
(루르드, 파티마, 바르셀로나/425만원)
3.9/18 동유럽 성지순례 13일 395만원
247-5858, 010-3837-6434

나가사키 성지순례 대마도 · 일본

010-8511-2442, 253-5887
발해투어 www.valhae.co.kr
황 백 현(프란치스코)

샬트르섬바로 수녀회대구관구 백합식품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농으로 만드는 우리의 정맛
수녀원 매주,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대추, 대추즙
대구 053)257-1771 서울 02)2202-8392
광명(자민) 053)857-2037 www.spfood.co.kr

소중한눈 안과

라식 / 라섹 / 백내장
노안수술 / 안내렌즈
대표원장 김 승 기(요셉)
920-7788
센텀시티역 13번/입페리얼타워 14층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태양공인중개사사무소

서면OT 28평형 급매(수익성 매우 양호)
말양 계획관리 토지 저렴(전원주택, 농장용)
양산 용당동 일야 6287m²
(40m 계획도로접, 자연녹지)
대표: 김 창 환(심플리치오)
010-3874-1627

국내 성지순례 버스

리무진, 45인승, 25인승
성지순례 코스 상담 환영
결혼식 웨딩 버스 대절
미래고속관광(주)
055-333-6300, 010-9809-6300

honre청 교우 10% DC

전통과 신뢰의 웨딩 명가 SINCE 1990
서구식, 야외, 전통혼례, 실내 야외 촬영
구경, 공공기관, 성당, 교회, 뷔페 예식 전문
서정자(마르타) 807-2025
http://www.honre.com(총회사 링크)

거 제 주 단

주단, 포복,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데레사)
점포: 632-0696, 집: 416-9168
휴대폰: 010-9331-6633
진시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로만 안쪽 화장실 옆

이상열

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 · 어깨통증(오십견), 손 · 발 저림 및 시림
구서전철역 앞 동산약국 2층
원장/전문의 이상 열(베드로)
516-0888

농아인선교회 5월 수화교실 수강생 모집

신청 : 5.14(일) 까지
 [기초, 중급반] 개강 : 5.11(목) 19:00 주 2회(화, 목)
 3개월 과정 / 수강료 : 5만원(교재비 별도)
 [고급반] 개강 : 5.11(목) 19:00 주 1회(목)
 3개월 과정 / 수강료 : 7만원(교재비 별도)
 · 부산가톨릭농아인선교회, 복지회 2층
 ※ 수강 인원 정원 미달시 폐강 될 수도 있음
 문의 : 751-8693, 010-8001-4435(심은경)

오륜대순교자성지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월, 금 14:00~15:30 / 문의 : 515-0030

평화 여성의 전화 상담 및 쉼터

월~일(24시간) 상담 가능 / 문의 : 467-7897

교육 · 모집 · 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5.5(금) 11:00 · 남천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마음듣기 피정

· 5.5(금) 14:00~6(토) · 성심영성센터
 내용 : 상처받은 마음치유 및 마음돌보기
 문의 : 581-3114

울리베마노성베네딕도수녀회 해바라기 봄피정

· 5.13(토) 16:00~14(일) 15:00
 · 부산 성분도 은혜의집
 대상 : 35세이하 미혼여성 / 문의 : 010-8551-3312

<오디푸스> 강좌(사랑이 탄생하는 2단계)

· 5.15~7.17 매주 월요일 10:00~12:15(10주)
 내용 : 부정적 정서의 대물림방지를 위한 대안
 (위나캣 수강자 한함)
 문의 :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회, 남천동)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966.5.3. 김영제(요한) 신부님
 1986.5.3. 김충무(클라멘스) 신부님
 2001.5.5. 박동준(마티아) 신부님

2017 울지마톤즈 참사랑 문화 나눔 축제

· 5.5(금)~7(일) 13:00~20:00
 · 송도해수욕장 및 송도성당 일원
 이태석 신부 기념음악회 : 5.5(금) 18:30
 제4회 참사랑음악경연대회 : 5.6(토) 18:30
 톤즈거리 길 걷기 : 5.7(일) 14:00
 문의 : 241-1601(이태석신부 참사랑실천사협회)

힘들실바타운 신관 입주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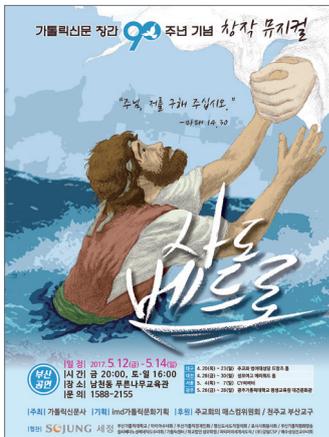
신관(20평형) 83세대 (망미동 소재)
 구경하는 집 오픈(10:00~16:30)
 대상 :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식당, 병원 및 사우나 등 프로그램랩 완비) / 문의 : 758-6231

트라우마치유 워크샵 참가자 모집

· 6.28(수)~7.2(일) · 마리아 피정의집
 강사 : Dennis 신부, Efu 수녀
 문의 : 010-6318-9889(연리지)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7.26(수)~8.7(일) · 서유럽 / 465만원
 독일항공,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기독교신문 창간 90주년 기념 창작뮤지컬
 "우직, 궤를 구해 주실세."
 - 이사야 40:30

5월 12일(금) 20:00, 13(토) 16:00
 장소: 남천동 푸른나무교육관
 가격: 2만원(20인 이상 단체 및 가톨릭신문 구독자 15,000원)
 문의: 1588-2155, (053)251-0720~1

기독교신문 창간 90주년 기념 창작뮤지컬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 사도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최초 증인이자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성인의 삶이
 창작 뮤지컬로 되살아난다.

날 짜: 5/12(금) 20:00, 13(토)~14(일) 16:00
 장 소: 남천동 푸른나무교육관
 가 격: 2만원(20인 이상 단체 및 가톨릭신문 구독자 15,000원)
 문 의: 1588-2155, (053)251-0720~1

|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 일 시 | 장 소 | 문 의 |
|----------------|-------------------|----------------|---------------|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5.7(일) 10:00 | 서울 돈암동 본부 | 02-924-3048 |
| 스승예수제의자수녀회 | 5.7(일) 14:00 | 부산 본원 | 010-6271-4110 |
| 살레시오회 | 5.6(토) 15:00~7(일) | 서울 돈보스코 청소년 센터 | 010-3894-1332 |
| 한국외방선교회 | 원하는 시간 | 원하는 장소 | 010-3777-4688 |

인간존중 · 생명사랑 정신을 구현하는
부산가톨릭대학교 학과 안내 ⑤
 방사선과학 기술교육을 선도하는
방사선학과
 www.cup.ac.kr

메리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박장애 클리닉 | 우울증 클리닉 | 수면장애 클리닉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부산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진료 문의 : 461-2506~7
 입원 문의 : 461-4233, 4433
 접수 및 예약 : 461-2201~4

가톨릭센터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
 가톨릭센터 문화공연 아름다운세상 68
 가정의 달 특집 **차광준 신부와 함께하는**
눈으로 즐기는 성경미사
 일시: 5/6(토) 14:00 장소: 가톨릭소극장
 1부 - 버블 매직쇼, 2부 - 눈으로 즐기는 성경미사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

선비목집
 통영산골 코스요리 개시
 굴구이, 생굴회, 연어샐러드
 굴전, 굴탕수육, 굴국밥
 입안에 바다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 목요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553-3929 동래 메가마트 정문 옆 주차원

매매 · 교환 · 위탁 · 폐차 · 각종보험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
일산자동차매상사
 대표 조남철(네레오) 010-3573-8797
 르노삼성자동차 신차의 모든것
 (SM6, SM세리즈, QM세리즈)
 조정현(엘리아) 010-9333-4784

성모치과
 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

(주)석경
 전문건설면허법인 주거, 상업,
 인테리어 전문업체 의료, 업무공간
 심재영(베가), 박승국(라자로)
 해운대구 중동
 동아아파트상가 105호 744-1217
 www.seokkyung.com

50년 전통 **명신당**
 목주반지, 귀금속 예술품에 전문
 반광옥(바오로) 김영란(제노베파)
 646-7885
 010-3599-7885
 부산은행 빌딩 맞은편

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 · 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병희(야네스)

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 · 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베드로)

박숙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횡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 숙 현 (에스텔)
 의학박사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

눈시원안과
 이 현 석(분도)
 전, 국민포장 수상과 공동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 숙 현(에스텔)
 의학박사
 010-8108-2110
 상곡회소 옆 이랜드빌딩 3층